

잉여현상의 양상과 해석

신 회 삼
(동신대학교)

Shin, Heesam. 1998. The Types and Interpretation of Redundancy Phenomena. *Linguistics*, 6-2, 203-221. It is common situation that the provided information is more than it is actually necessary when we define a certain subject. Overflowing of such information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is called "redundancy". There are three types of redundancy phenomenon, those are, internal word, phrase, and sentence modalities. The causes of generating redundancy phenomenon are weakening and strengthening of meaning. The reason that the redundancy phenomenon originated in weakening of meaning is due to the restitution force of original meaning. Therefore, the weakening of meaning has greater effect on redundancy phenomenon than the strengthening of meaning. The redundancy phenomenon has positive, negative, and derivative function. Among these, derivative function is worth noticing.(Dongshin University)

1. 들머리

우리가 일상의 의사 소통과정에서 흔히 느끼는 것 중의 하나로 잉여현상을 들 수 있다. 잉여현상은 어떤 것이 요구하는 필요 정보량보다 많은 정보가 부가된 것을 가리킨다. 이는 의미변화의 원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잉여현상과 관계된 의미변화는 통시적인 요인보다는 언어 자체 내의 이질적인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한자어에 대한 불투명한 지식이나 화자의 의도적 곡해 등이 작용하여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의미변화의 범주는 '의미약화'나 '의미강화' 등으로 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어, 구, 문장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잉여현상이 특히 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의미중복'이나, '동의첨어', 혹은 '동의중복'이라 하여 주로 자율언어학¹⁾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1. 자율언어학이란 구조언어학과 생성언어학을 가리킨다. 이는 인지언어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이다. 구조주의에서는 언어형태의 의미가 언어 사용자와는 무관하

그러나 잉여현상을 자율언어학의 관점으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잉여현상의 본질은 인간의 심리나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념적 지식에 대한 실질적 내용에 관해 경험적 탐색을 계속하고 있는 인지언어학의 원용은 어휘의미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된다. 지금까지 잉여현상은 자율적 영역안에서만 그 원리가 추구되었는데, 필요 이상의 정보를 부가하는 잉여현상의 본질상 자율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결국 이는 인지체계안의 개념적 내용의 조직을 환기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잉여현상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극히 문법적인 면에 연연하여 단어의 분석과 같은 자율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구조 분석의 차원에서 머무른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인지적 관점의 분석은 인간 심리 면에까지 다가가 그 원인을 밝히려 하기 때문에 구조 분석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어휘에 관한 기본 이론으로서 '원형'이론은 몇 가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잉여현상도 어휘 범주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원형이론의 적용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밝혀 나가겠지만 잉여현상의 발생원인인 의미약화나 의미강화는 '원형'이라는 고리에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모래사장(沙場)'에서 '사(沙)'의 의미가 약화되어 '사장'의 원형의미가 상실될 위기에 처하면 '사'에 해당하는 고유어 '모래'가 결합되어 원형을 유지하려는 작용을 한다. 이때 '사'에 해당하는 어휘는 '사장'의 원형만 유지하는 것이라면 '모래'든 혹은 그 무엇이든 관계가 없다. 또한 의미강화 역시 원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침조반'의 경우 '조반'의 원형이 화자에게든 혹은 청자에게든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 즉 훼손되었다고 여기어 '조(朝)'에 해당하는 '아침'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조반'만으로 의미가 충분하여 곧 원형의미가 상실되지 않아 이는 의미강화로 처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침조반'은 '조반'만으로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에서

계 언어체계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율성의 확보가 언어학의 위상을 상당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였지만 스스로 정해 놓은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구조주의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뒤이어 나타난 변형생성주의는 여러 가지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율언어학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각, 경험, 문화적 배경 등과 같은 일반적 인지능력을 언어능력과 별개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는 거의 '조반'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듯 인지언어학의 대표적 이론인 원형이론은 기존의 해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거나 과감한 수정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지의미론의 기본 바탕 위에서 잉여현상의 개념을 밝히고 양상, 발생원인, 기능 등의 순서로 서술해 나가겠다.

2. 잉여현상의 개념

잉여(redundancy)현상이란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정보량의 과잉 현상을 말한다²⁾. 언어란 그 속성상 신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 세 단계에서 주로 성장의 과정에서 잉여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한자어나 영어처럼 성격이 다른 외래어와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어떤 어휘의 의미적 정보량은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의사소통에서의 소통력에 의해 정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잉여현상이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① 계집년, 바윗돌, 사내늬
- ② 새신랑(新郎), 손수건(手巾), 아침조반(朝飯)
- ③ 국화(菊花)꽃, 역전(驛前)앞, 생일(生日)날
- ④ 과반수이상(過半數以上)
- ⑤ 긴 장대(長), 넓은 광장(廣場), 큰 대문(大)
- ⑥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2. 딜롱(G.L.Dillon,1977: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잉여성의 예를 들고 있다.

- ㄱ. intentionally murderer
- ㄴ. male uncle
- ㄷ. scrutinize carefully
- ㄹ. circumnavigate around

위의 ㄱ의 'murderer'에는 [+죽이다] [+고의성]의 의미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intentionally'의 [+고의성]과 의미중복을 낳게 되었다. ㄴ역시 'uncle'의 의미성분 가운데 하나인 [+남성]과 'male'의 [+남성] 사이에 잉여성이 나타난다. ㄷ, ㄹ에서도 동사가 지닌 의미속성의 일부와 후행하는 부사의 의미속성이 겹치게 되므로 잉여성이 나타난다.(임지룡,1995:314에서 재인용)

(1)의 예들은 ①고유어, ②고유어+한자어, ③한자어+고유어, ④한자어와 같은 단어 내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중복과 ⑤,⑥과 같은 단어를 넘어선 통사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①의 '바윗돌'의 경우는 전체 의미로 볼 때, 바위와 돌의 의미가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형적 의미로 보아 '바위'가 '부피가 큰 돌'을 가리키는데 반해서 '돌'은 '바위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광물질의 단단한 덩어리'를 가리키므로 '바위'와 '돌'은 의미자질상으로 의미중복이나 잉여적 현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의 환경에서는 '바위'와 '바윗돌'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잉여현상의 하나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다. ②의 '새신랑'의 경우는 '새'와 '신(新)'의 의미가 그대로 중첩이 되므로 분명한 잉여현상이다. 이는 실제 의사소통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③의 '역전앞'의 경우는 '전(前)'과 '앞'이 의미 중복을 일으키므로 이것 역시 잉여현상의 하나이다.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의미중복을 일으키므로 '역전앞'을 '역전'이나 '역앞'으로 고쳐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데, 현재 거의 '역전앞'으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④의 '과반수이상'은 '과(過)'와 '이상(以上)'이 의미중복을 일으키므로 잉여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⑤의 '긴 장대'는 '긴'과 '장(長)'이 의미중복을 일으킨다. ⑥은 '역시'와 '마찬가지'가 의미중복을 일으킨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잉여현상은 단어와 구, 문장 등에서 그리고 고유어 한자어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잉여현상이란 내부 구조에 관계없이 의미상으로 중첩되어 사용되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3. 잉여현상의 양상

잉여현상의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조건만 맞으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 조건이란 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 혹은 화자의 의도이든 청자를 배려한 것이든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조건'이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가리킨다. 단어 내에서 구에서 문장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의 양상을 보기로 하

자.

3.1 단어 내부의 양상

단어 내부에서 나타나는 임여현상은 고유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한자어는 외래어의 의식이 강한 어휘이므로 그 중의 하나를 고유어로 바꿔 의미 파악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식의 작용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시 완전한 임여현상과 불완전한 임여현상으로 나눌 수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 ① 고유어+고유어

고개마루, 뿔따귀

② 고유어+한자어

강촌마을(江村), 계수나무(桂樹), 고목나무(古木)

국화꽃(菊花), 낙숫물(落水), 단발머리(短髮)

대관령고개(大關嶺), 돈금고(金庫), 매화꽃(梅花)

면도칼(面刀), 모래사장(沙場), 무료심심하다(無聊)

박수치다(拍手), 뱀사탕(蛇湯), 분가루(粉)

뼈골(骨), 사각형모양(四角形), 사기그릇(砂器)

산채나물(山菜), 삼각형모양(三角形), 삼월달(三月)

상가거리(商街), 새신랑(新郎), 생일날(生日)

석교다리(石橋), 석유기름(石油), 손수건(手巾)

시내안(市內), 시월달(十月), 신화이야기(神話)

아침조반(朝飯), 야구공(野球), 약숫물(藥水)

양옥집(洋屋), 여가시간(餘暇), 역전앞(驛前)

옛구습(舊習), 오월달(五月), 외갓집(外家)

외독자(獨子), 옷칠(漆), 장터(場), 전시때(戰時)

증조할아버지(曾祖), 처갓집(妻家), 축구공(蹴球)

한옥집(韓屋), 해변가(海邊),懸안문제(懸案)

홍도섬(紅島), 황토흙(黃土), 후원뜨락(後園)

③ 한자어+한자어

과반수이상(過半數以上), 미장가전(未丈家前)

(2)의 예는 완전한 잉여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로 ‘고유어+한자어’의 경우에서 많은 생산성을 보인다. 이것은 곧 한자어에 대한 지식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의미를 확실히 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한자어의 어느 하나를 고유어로 바꾸어 의사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3) ① 고유어+고유어
계집년, 사내놈
② 고유어+한자어
기적소리(汽笛), 돌비석(碑石), 자식새끼(子息)
③ 한자어+한자어

(3)의 예는 불완전한 잉여현상의 예들이다. 완전한 잉여현상의 경우 중복이 되더라도 의미상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불완전한 잉여현상의 경우는 본래의 의미와 약간 달라진다. ①의 ‘계집년’과 ‘사내놈’의 경우 ‘사내’와 ‘계집’에 ‘년’과 ‘놈’이 결합됨으로써 비하적 의미가 첨가된다. ②의 ‘기적소리’는 ‘적(笛)’의 의미와 ‘소리’의 의미가 완전한 동의어로는 보기가 힘들다. ‘돌비석’의 경우는 형태상으로 여타 중복어들과 다르다. ‘돌비석’을 여타 중복어처럼 고치면 ‘비석들’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형태상으로 불완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식새끼’는 고유어의 경우와 같이 비하적인 느낌이 든다. ③한자어의 경우는 현재 빈자리로 남아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①의 고유어의 경우는 그 예가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대부분이 불완전성을 보여 준다는 점이고, ③의 한자어는 빈자리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유어+고유어’ 혹은 ‘한자어+한자어’는 ‘고유어+한자어’보다 이질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의미의 재해석이나 덧붙임과 같은 잉여적 도움이 필요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잉여성을 띠더라도 분위가가 약간은 다른 불완전한 잉여성을 띠게 된다. 특히 ‘한자어+한자어’의 경우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은 한자어 자체가 완전한 이질적 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3.2 구의 양상

구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은 단어 내부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단지 형태상으로 단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구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4) ① 관형성

가까운 측근(側近), 같은 동갑(同甲), 같은 동료(同僚)
 긴 장대(長), 남은 여생(餘生), 넓은 광장(廣場)
 누런 황금(黃金), 늙은 노인(老人), 더러운 오물(汚物)
 따뜻한 은정(溫情), 떨어지는 낙엽(落葉), 마지막 종점(終點)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推進力), 밝은 명월(明月)
 빈 공간(空間), 사랑하는 애인(愛人), 어려운 난관(難關)
 어린 소녀(少女), 젊은 청년(青年), 좁은 소견(所見)
 지나가는 통행인(通行人), 큰 대문(大), 허연 백발(白髮)
 흰 백묵(白墨), 힘든 노동(勞動)

② 부사성

그림으로 도해하다(圖解), 다시 재론하다(再論)
 둘로 양분하다(兩分), 뒤로 후퇴하다(後退)
 미리 예습하다(豫習), 서로 상의하다(相議)
 스스로 자각하다(自覺), 앞으로 전진하다(前進)
 일찍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자리에 착석하다(着席)
 짧게 약술하다(略述),

③ 서술성

결실(結實)을 맺다, 결연(結緣)을 맺는다
 계속(繼續) 이어지다, 공감(共感)을 느낀다
 과정(過程)을 거치다,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다
 내재(內在)해 있다, 무수(無數)히 많다
 소급(溯及)해 올라가다, 소득(所得)을 얻다
 수확(收穫)을 거두다, 순찰(巡察)을 돌다
 시범(示範)을 보이다, 여백(餘白)이 남다
 유산(遺産)을 남겨주다, 유언(遺言)을 남기다

이발(理髮)을 깎다, 잔재(殘在)가 남다
 전래(傳來)되어 오는, 전력(全力)을 다하다
 집무(執務)를 보다, 축구(蹴球)를 차다
 출동(出動)을 나가다, 포로(捕虜)로 잡히다
 피해(被害)를 입는다, 향락(享樂)을 즐기다
 회의(懷疑)를 품는다

(4)의 예들의 특성은 잉여현상의 양상이 우리말의 통사적 구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통사적 합성어처럼 통사적 잉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사적 구조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자어에 대한 의미 소통상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단어나 문장에서의 경우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의 경우에 있어, 단어와 다른 점은 단어는 잉여현상이 어휘화의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단어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제약이 있는데 비해, 구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나타나는 잉여성이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3 문장의 양상

문장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은 단순중복과 잠재적 중복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순 중복은 단어나 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고, 잠재적 중복은 문장만이 가진 특정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 ① 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나도 마찬가지이다.
 ③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5)의 ①은 ‘도’와 ‘역시’가 의미 중복이 된다. 이것은 ②와 ③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때의 ‘도’와 ‘역시’는 단어나 구에서 나타나는 중복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경우의 잉여기능은 의미강화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문장 속성을 가진 잉여성은 다음 예에서 잘 나타나 있다.

- (6) ① 물이 펄펄 끓는다.

- ② 이 도로는 좌회전은 가능하고 우회전은 불가능하다.
- ③ 착한 어린이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닙니다.

(6)의 예들은 겉으로는 잉여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재적 관점에서 보면 잉여적인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 ①에서 ‘펼펼’은 ‘끓는다’ 속에 포함된 의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펼펼 끓는다’는 잠재적 중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펼펼’의 원형의미를 분석하면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펼펼’은 ‘많은 물이 자꾸 끓는 모양’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단순한 의미의 ‘물이 끓는다’와 구체적 의미인 ‘물이 펼펼 끓는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 (7) ①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 ② 국이 펼펼 끓는다.
- ③ 여름에는 반드시 물을 펼펼 끓여 먹어야 한다.

(7)의 예에서 ①의 ‘부글부글’ ②의 ‘펼펼’ ③의 ‘펼펼’은 단순한 잉여적 성분 이상의 필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의 ②와 ③은 대립적 관계에 따른 잉여성으로 해석하지만 (6)의 ①과 같이 단순한 의미 중복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8) ① 이 도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
- ② 이 도로는 좌회전만이 가능하다.
- ③ 착한 어린이는 차도로 다닙니다.
- ④ 착한 어린이는 차도로만 다닙니다.

(8)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한쪽이 선택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관계는 아니다. 단순한 잉여현상이 아닌 어떤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불완전한 잉여현상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잉여현상의 발생

단어 내에서 발생하는 잉여현상에 관해서 라이온스(1977:36)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방해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잉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본(1979:31)은 의사소통의 규칙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좀더 큰 손실을 가져올 때 의사소통 중요성의 척도상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잉여성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잉여현상의 발생은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의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변화에 기인한 언어적인 이유와 의미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자의적인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1 언어적 이유

언어적 이유는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자연스러운 언어적 특성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의미약화'와 '의미강화'를 들 수 있다.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재해석하면 이들의 관계는 '원형'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의미약화'는 원형의미가 상실함을 가리키는데, 이에 따라 원형의미를 회복하기 위하여 약화된 부분을 보충하는 잉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의미강화'는 원형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 없는 보충을 하는 것이어서 '의미강화'의 경우는 대부분 어휘화까지 이르지 않는다.

4.1.1 의미약화

하나의 단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의미가 약화되어 결국 소멸의 길을 걷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에 단어의 의미는 약화된 부분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복원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의미약화'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 복원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 (9) ① 모래사장(沙場), 손수건(手巾)

② 초가집(草家), 송이버섯(松栢)

(9)의 ①은 앞성분이 약화된 예에 속한다. '사장'에서 '사(沙)'의 의미는 모래의 의미가 약화되어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沙)'에 해당하는 고유어 모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한자어의 의미가 약화되면 고유어로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³⁾ '손수건'역시 같은 경우인데, '수건(手巾)'에서 '손'의 의미는 거의 상실하다시피 되어 단지 '베'의 의미만 남아 있다. 특히 '물수건'이나 '발수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⁴⁾. ②의 경우는 뒷성분의 의미가 약화된 경우를 가리키는데, 뒷성분의 약화는 앞성분의 약화보다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우리말 합성어의 핵이 뒷부분에 있다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 지도 모른다. 우리말의 합성어가 뒷부분에 의미의 핵이 놓여 있고, 또한 비슷한 고유어가 많음으로 인해서 유추나 대치의 효과가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고유어에서 보다 한자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심재기(1982:230)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한자어가 외래어로 국어에 수용되었으나 고유어와 동질적으로 동화되지 못해 의사 소통상 자연스럽게 잉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⁵⁾. '초가집'의 경우 '가(家)'가 '집'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초가'가 아닌 '초가집'이 된 것이다. 이는 고유어 '기와집'의 영향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작용한 듯이 보인다. '송이버섯'에서 '이(栢)'가 '버섯'의 의미를 상실하여 고유어 '버섯'이 결합하여 '송이버섯'이 된 것이다. 이것 역시 고유어의 대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②의 예와 고유어 대치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혹은 '백사장(白沙場)'처럼 고유어가 아닌 다른 한자어가 오는 경우는 그 의미를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에 다른 성분이 결합함으로써 원래의미가 복원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4. '세수(洗手)'가 손만이 아닌 '낮을 씻음'으로 의미가 확대된 경우와의 연관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5. 송민(1990:54)은 이러한 현상이 한자어의 의미가 불투명해져 가고, 또한 일반 언중들의 분석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자교육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한자교육에 대한 견해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르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10) ① 초가- 기와집, 너와집, 벽돌집, 나무집, 돌집
 송이-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싸리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② 처갓집, 대갓집-초가집

(10)의 예는 ①에서 ‘초가’가 ‘기와집’ 등에서 유추·대치되어 ‘초가집’이 되고, 이것은 다시 ②에서 보듯이 ‘처갓집’, ‘대갓집’과 같은 어휘를 파생시킨다.

4.1.2 의미강화

의미강화는 앞에서 말한 의미약화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미약화와 의미강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의미약화는 말그대로 기존의 의미가 약화되어 거의 상실의 상태여서 이에 상응하는 단어가 결합하지 않으면 약화된 단어를 포함한 단어 전체의 의미가 상실하거나 왜곡되는데 비해, 의미강화는 잉여성분의 결합이 없어도 단어의 의미가 지속되는 것이 다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1) ① 사내놈, 계집년, 바윗돌
 ② 아침조반(오찬, 조찬, 석식, 조식) 새신랑 옛구습
 ③ 자식새끼, 매화꽃(매실열매), 석유기름

(11)의 예 ①의 ‘사내놈’에서 뒷성분 ‘놈’이 없어도 ‘사내’의 의미는 큰 변화가 없다. 있다면 단지 비하의 느낌인 것이다. ‘계집년’도 마찬가지이다. ‘바윗돌’은 ‘바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른 부가적인 느낌의 차이까지도 그러하다. ②는 앞성분의 의미강화에 해당하는 예인데, ‘아침조반’은 잉여현상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실제 의사소통의 환경에서는 거의 ‘조반’만이 쓰인다. 이는 ‘조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조찬, 오찬, 조식, 석식’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아침조찬, 점심오찬, 아침조식, 저녁석식’ 등으로 쓰이는 예는 거의 없다. ‘새신랑’의 경우는 ‘신(新)’의 의미를 강조한

6. ‘(手巾)수건’은 앞에 ‘손-’이나 ‘물-’과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것이 자연스럽고, ‘수건’ 자체에서는 ‘수(手)’에 해당하는 의미나 기능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다.

나머지 ‘새’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신부’는 ‘새신부’로 쓰이는 경향이 거의 없다. ‘옛구습’은 약간 어색스러운 느낌일 정도로 잘 쓰이지 않는 예이다. ③은 뒷성분의 의미강화에 해당하는 예이다. ‘매화꽃(梅花)’의 경우 ‘꽃’이 없이 ‘매화’만으로 의미 소통이 가능하며 실제 ‘매화’가 ‘매화꽃’보다 더 자주 쓰인다⁷⁾. 이는 ‘매실(梅實)’과 비교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매실’을 ‘매실열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2 자의적 이유

자의적 이유란 구조적인 의미변화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언어적 잉여현상이 나타난 단어는 어휘화가 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손수건-물수건, 발수건, 털수건’과 같이 파생어휘를 발생시키지만 자의적 잉여현상의 경우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옛글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현대 국어에서도 일부분 발견이 된다. 다음 예를 보자.

- (12) ① 鶴두루미, 長林 숲, 담牆, 玉顏仙風 고운 얼굴, 붉은 丹, 푸를 靑, 漆夜三更 깊은 밤에, 마음이 心亂하구나
 ② 어린 소녀(少女), 젊은 청년(青年)

(12)에서 ①의 예는 춘향전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심재기(1982:226)에서⁸⁾ 지적하였듯이 단어 자체가 의미가 약화되거나 강화된 것이 아니라 단어 이외의 원인에 의해 잉여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①의 예들은 이와 관련된 어

7. ‘국화’의 경우는 ‘국화꽃’도 가능한데, 이는 문학작품에서 자주 사용된 적이 많아 언중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로 생각한다.

8. 심재기(1982:226)는 의미중복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ㄱ. 발화시의 특별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곧 판소리 연출 중에서 음수율을 맞추기 위한 수단.
- ㄴ. 한쪽 부분의 단어만으로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수단. 곧 화자의 의구심이 잉여성을 형성.
- ㄷ. 한자 풀이에 의한 부작용에 의한 소산.
- ㄹ. 한자 동음어는 2,3개에서 5,6개에 이르는데 한자의 왕성한 조어력은 거의 무한대의 동음어를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그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방편의 하나가 수식어로서 한자어의 어느 하나에 분명한 뜻풀이를 붙이게 된다.

휘를 더 이상 파생시키지 않았다. ②는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예들인테 이들 역시 왜곡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것을 자의적이 아닌 정상적인 수식어구로 받아 들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소녀'와 '젊은 청년'에서 '소녀'와 '청년'이 의미변화를 경험했다는 가능성이다. 곧 '소녀'는 사전적 의미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도 않고 아주 어리지도 않은 아이'인데 '어린 소녀'가 가능한 것은 '소녀'의 의미 범주가 '어린'에서 '성숙'까지 확장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자의적 해석의 범위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5. 잉여현상의 기능

잉여현상이 언어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면 여기에는 분명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 기능은 잉여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능의 긍정성, 부정성, 어휘 파생성을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⁹⁾.

- (13) ① 의사 소통력
- ② 단어경제 원칙
- ③ 생산성

(13)에서 ①의 의사 소통력은 잉여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결정된다. ②단어경제원칙은 최소의 어휘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한 수의 차이가 아닌 의사소통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③생산성은 잉여현상이 어휘화가 되었을 때 수많은 파

9. 키스너(1977)는 잉여성의 부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특성을 네 가지로 보고 있다.

ㄱ.크지만 한정된 기억력

ㄴ.지능

ㄷ.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향

ㄹ.여러번 치루어야 하는 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임지룡,1995:319에서 재인용)

생어휘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현상의 기능을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언어 파생기능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5.1 긍정적 기능

영어현상의 긍정기능은 의사소통의 극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단어, 특히 합성어에 있어 어느 한쪽의 의미성분이 왜곡되거나 약화될 때, 언어적 수식은 단어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현상이 어떤 구조일 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말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에 따라 다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4) ① 고유어+고유어

고갯마루, 사내놈, 계집년, 바윗돌, 뺨따귀

② 고유어+한자어

모래사장(沙場), 손수건(手巾), 초가집(草家), 해변가(海邊), 야구공(野球), 생일날(生日), 약숫물(藥水), 대관령고개(大關嶺), 박수치다(拍手)

③ 한자어+한자어

과반수이상(過半數以上)

(14)의 ①에서는 긍정적 기능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어느 한 성분이 의미가 약화되거나 왜곡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는 어느 한 성분이 의미가 약화되어 원래 단어의 의미 전달에 방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의미인 고유어를 결합함으로써 원래 의미로 복원해 놓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특히 ‘해변가’나 ‘야구공’, ‘약숫물’의 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변가’에서 ‘해변’은 ‘변’의 의미를 상실하여 ‘바다’를 지칭하고, ‘야구공’에서 ‘야구’의 ‘구’는 ‘공’의 의미를 상실하여 단순히 게임의 의미만을 가지고, ‘약숫물’에서 ‘약수’는 ‘수’의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약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 ③의 경우는 긍정적 기능이라 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영어현상의 긍정적 기능은 의미정보의 상실에 따른 의미 약화의 경우에 주로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

5.2 부정적 기능

잉여현상의 부정적 기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언어의 경제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정적 기능이란 의미가 약화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아닌 단순히 중첩된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의 명확한 판별 기준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언어 경제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 (15) ① 의사소통의 효율성
 - ② 시간성
 - ③ 청자의 수용태도

(15)에서 ①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란 잉여정보가 더해짐으로서 의미가 명확해 지느냐의 여부이다. 보통 잉여정보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부정적 기능으로 간주한다. ‘순 진짜 참기름’ 같은 예가 이에 해당된다. ②의 시간성이란 잉여정보로 인하여 의미해석에 시간이 걸리면 부정적 기능으로 본다. ‘나도 역시 너와 꼭 같이 공감을 느낀다’ 같은 것이 해당된다. ③청자의 수용태도는 화자의 배려로 잉여정보가 더해 졌을 때, 청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부정적 기능에 속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우리 ‘아침조반’을 먹을까?”라고 했을 때, ‘조반’, ‘오찬’, ‘석식’ 등의 어휘에 익숙한 청자는 ‘아침조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지 모른다. 이런 경우 부정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을 원용하여 부정적 기능을 살펴 보기로 하자.

- (16) ① 고유어
 - 너만 혼자 가거라.
 -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칩시다.
- ② 고유어+한자어
 - 아침조반(朝飯), 옛구습(舊習), 석유기름(石油), 홍도섬(紅島), 무료심심하다(無聊), 역전앞(驛前)
- ③ 한자어
 - 과반수이상(過半數以上)

(16)의 ①고유어의 경우에는 단어는 해당사항이 없다. ‘너만 혼자 가거라’에서 ‘혼자’라는 잉여적 성분이 끼어 들어 ‘나만’에서의 ‘만’의 의미를 회색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칩시다’는 잉여성분 ‘모두’와 ‘다 같이’가 끼어 들어 의사 소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왜곡시킬 우려까지 있다. ②의 예들은 비슷한 단어들의 불확실한 유추에 의한 부정적 기능의 예이다. ‘아침조반’은 ‘아침밥’에서, ‘석유기름’은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에서, ‘홍도섬’은 ‘밤섬, 동백섬, 바위섬’ 등에서 유추되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역전앞’은 의미의 중복이라 해서 고쳐서야 할 단어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역전앞’은 ‘역앞’이나 아니면 ‘역전’ 그대로 써야 맞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③의 ‘과반수이상’은 현재의 판단으로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5.3 단어 파생 기능

잉여현상의 기능에서 특이한 것은 유사한 단어 파생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로 의미가 약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복어에서 나타난다. 파생의 과정은 약화된 단어가 기존의 의미를 상실하고 약화된 의미가 새로운 단어로 인식되는 데서 출발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7) ① 손수건(手巾)-물수건, 털수건, 발수건
- ② 초가집(草家)-외갓집, 처갓집, 대갓집
- ③ 흰백묵(白墨)-노란백묵, 파란백묵
- ④ 큰대문(大門)-작은대문

(17)의 예들은 앞성분 ‘수(手)’, ‘가(家)’, ‘백(白)’, ‘대(大)’의 의미가 약화되어 본래의 의미를 잃어 버리고 ‘건(巾)’, ‘초(草)’, ‘묵(墨)’, ‘문(門)’의 의미만이 남게 되어, 본래의 의미와 상반된 ‘발(발수건)’, ‘노란(노란백묵)’, ‘작은(작은대문)’ 등과 어울려 새로운 의미를 파생하게 된다.

6. 마무리

잉여현상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주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을 구조적 기준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인지의미론에서 주장하는 중요 이론 중의 하나인 원형이론은 이러한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마무리로 대신하겠다.

첫째, 잉여현상이란 의사 소통에서 발생하는 정보량의 과잉현상을 말한다.

둘째, 잉여현상의 양상은 단어, 구, 문장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잉여현상은 대부분이 한자어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다시 완전한 잉여현상과 불완전한 잉여현상으로 나눈다. 구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구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은 우리말의 통사구조와 어울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장에서 나타나는 잉여현상은 단순한 잉여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잠재적인 특성을 갖는데, 불완전한 중복의 성격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셋째, 잉여현상의 발생은 언어적 경우와 자의적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 경우는 다시 '의미약화'와 '의미강화'로 나눌 수가 있다. 의미약화는 긍정적인 편에 속하고, 의미강화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다.

넷째, 잉여현상의 기능은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단어 파생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단어 파생 기능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의미중복어가 어휘화의 과정을 거쳐 어휘로 자리잡는데 일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여기에는 잉여정보가 완전한 파생기능을 가질 정도의 객관적 자료 제시가 전제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 적격한 파생규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도. 1995. "인지 문법의 개관," 담화와 인지, 제1권, 담화·인지 언어학회.
 김종택·남성우. 1991. 국어의미론. 한국방송통신대학.
 박영순. 1996. 한국어 의미론. 서울: 고려대출판부.

- 박종갑. 1996.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서울: 박이정.
- 송민. 1990. "어휘 변화의 양상과 그 배경," 국어생활, 제22호, 국어연구소.
- 심재기. 1971. "국어의 동의중복현상에 대하여,"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3집, 서울대.
- . 1982.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 임지룡. 1983. "의미중복에 대하여," 배달말, 8, 배달말학회.
- . 1995. 국어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홍사만. 1990. 한국어휘의미연구. 서울: 학문사.
- Dillon, G. L. 1977.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Linguistic Semantics*, Prentice Hall.
- Givo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Jakendoff, R. 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as. :MIT Press.
- Lyons, J. 1968. *Semantics* vol. 1 &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0-714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직장 전화 0613-330-3615
집 전화 0652-224-2383